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페루

Republic of Peru

2023년 5월 18일 | 선임조사역(G2) 김은수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 | | | |
|--|---|--|---|
| 면적 1,285천 km ²  | 인구 3,417만 명 (2022 ^e)  |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 대외정책 경제실리외교  |
| GDP 2,424억 달러 (2022 ^e)  | 1인당GDP 7,094달러 (2022 ^e)  | 통화단위 Nuevo Sol (Ns)  | 환율(U\$기준) 3.84 (2022 ^e)  |

- 페루는 남미 북서부에 위치한 태평양 연안국으로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 볼리비아 및 칠레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면적은 한반도의 6배 수준이며, 2022년 기준 GDP 및 인구 규모는 각각 중남미 제6위 및 제5위 수준임.
- 구리, 금, 아연 등이 풍부한 광물자원 부국으로, 원자재 생산·수출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원자재 국제가격 및 글로벌 경기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 2022년 12월 카스티요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가결 이후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올해 2월까지 이어지는 등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한편, 부정부패 만연, 코카인의 원료인 코카(coca)의 불법 재배 및 마약 거래와 관련된 치안 불안, 광산 개발 등과 관련된 원주민 시위 등은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안데스공동체(CAN) 등 역내 정치·경제 공동체뿐만 아니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하고 역내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경제협력 대상국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3. 4. 1 수교 (북한과는 1989. 11. 21 수교)

주요협정 사증면제협정(1982),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1984), 문화협정(1988), 투자보장협정(1994), 관광협력협정(2003), 범죄인인도조약(2005), 자유무역협정(2011), 무상원조협정(2013), 이중과세방지협약(2014), 형사사법공조조약(2016), 사회보장협정(2019)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 구분 | 2020 | 2021 | 2022 | 주요품목 |
|----|-----------|-----------|-----------|--------------------|
| 수출 | 485,263 | 793,796 | 777,679 |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의약품 |
| 수입 | 2,756,311 | 3,450,101 | 2,846,950 | 천연가스, 동광, 기타금속광물 |

해외직접투자현황(2022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78건, 4,043,621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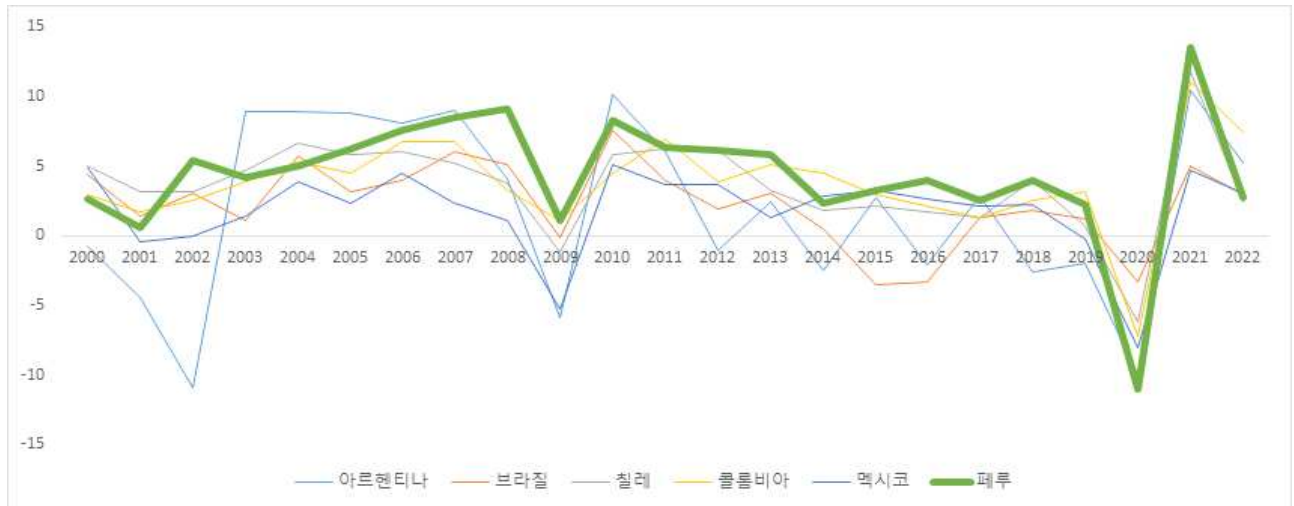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경제성장률 | 4.0 | 2.2 | -11.0 | 13.6 | 2.7 |
| 소비자물가상승률 | 1.3 | 2.1 | 1.8 | 4.0 | 7.9 |
| 재정수지/GDP | -2.0 | -1.4 | -9.0 | -2.5 | -1.3 |

자료: IMF

원자재 국제가격 호황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지속하나 정치 불안으로 저성장 전망

- 페루는 대다수의 중남미 국가와 달리 집권당의 정치적 노선에 관계 없이 친시장·친기업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투자여건을 조성해 왔으며,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노력, 예측 가능한 통화정책 등 투명한 거시경제정책을 토대로 2000년 이후 견조한 경제성장세를 보여 왔음.
- IMF에 따르면 2000~22년 중 페루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4.4%로, 같은 기간 중남미 전체 평균 경제성장률인 2.6%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페루는 지난 20여년 간 경기 부침을 거듭한 역내 주요국 대비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 시현한 것으로 확인됨.

[그림 1] 페루의 경제성장률 추이: 중남미 주요 6개국 비교(2000~22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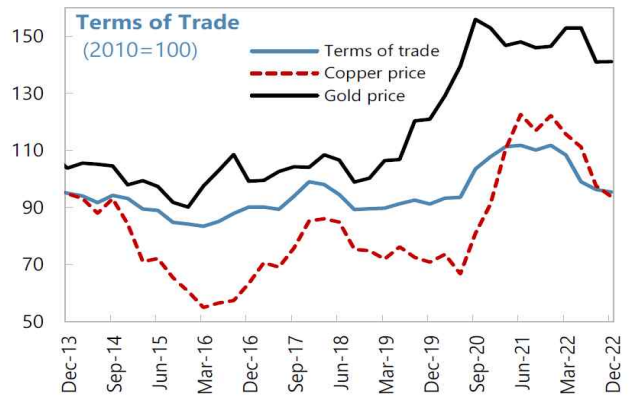
- 구리, 아연, 금 등 광물자원 수출 비중이 총 상품수출의 약 60%에 달하며, 전체 GDP에서 광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에 이르는 만큼 주요 원자재 국제가격 및 글로벌 경기 변동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좌우되는 구조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 2014년 중반부터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페루의 연간 경제성장률도 2014년 이후 5%선을 넘지 못하였음.

국내경제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시작된 대규모·장기간의 봉쇄조치로 광산 개발을 포함한 주요 경제활동이 마비되며 총수출과 외국인투자 유입액이 급감하고, 실업 증가 및 가계소득 감소로 민간소비도 전년 대비 -8.6% 감소하는 등 경제활동 전반이 위축되어 역내 주요국* 중 최저 성장률(-11.0%)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는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와 기저효과 등으로 13.6%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였음.

* 중남미 주요국 경제성장률(2020, IMF) : 브라질(-3.3%), 칠레(-6.1%), 콜롬비아(-7.3%), 멕시코(-8.0%), 아르헨티나(-9.9%)

[그림 2] 페루의 교역조건과 구리 가격 추이(201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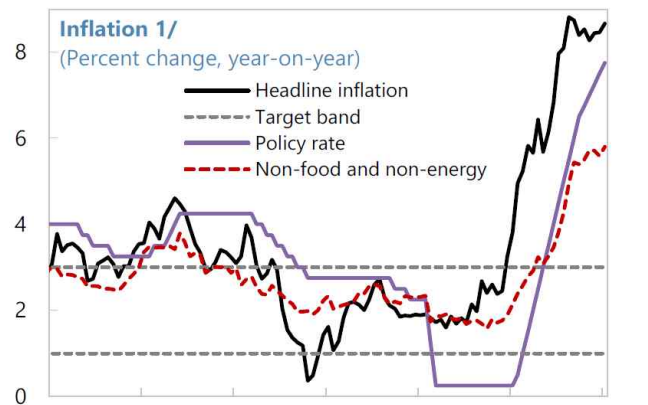
자료: IMF(2023)

- 2022년에는 이동제한 조치 완화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구리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등이 성장을 뒷받침하였으나 정정 불안에 따른 정부정책 불확실성, 광산 개발 관련 시위 확산 등 사회불안 고조 및 긴축적 통화 정책에 따른 민간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2.7%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한편,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원자재 국제수요 감소, 높은 물가상승률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카스티요 대통령의 탄핵과 이에 따른 정치·사회적 혼란에 따른 투자 감소 등으로 2023년에는 전년보다 낮은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IMF 2.4%).

중앙은행,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여 기준금리 대폭 인상

- 페루 중앙은행은 2002년부터 물가안정목표제(2±1%)를 도입하여 소비자물가수준을 관리하고 있음. 2020년에는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둔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연료 수입가격 하락 등이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연평균 1.8%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는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소비 증가, 연료 및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 범위를 초과한 4.0%를 기록하였음.
- 2021년 하반기부터 연료·식품 가격 상승, 솔(Sol)화의 미 달러화 대비 평가절하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하자, 페루 중앙은행은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여 2023년 1월까지 7.75%로 상향 조정하였음.
- 2022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여파로 인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 전년도 4.0%에서 7.9%로 상승하였음.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페루 중앙은행)은 2022년 6월 8.81%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 추세에 있으나, 2023년 2월 8.65%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임.

[그림 3] 최근 페루의 물가상승률 및 기준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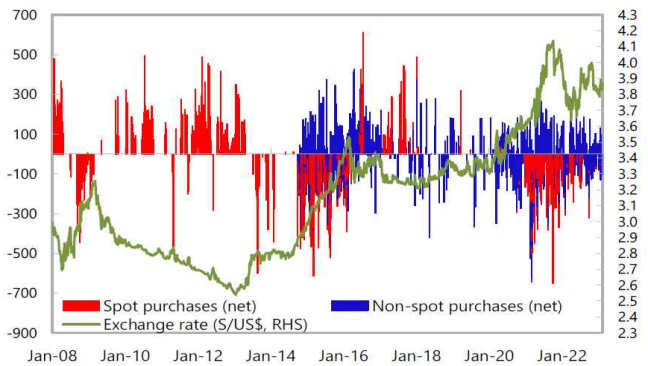


출처: IMF(2023)

국내경제

- 변동환율제를 운용 중인 페루는 투명한 거시경제 정책,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 부분적 달러 통용화 (Dollarization)* 정책 등을 유지한 결과 미 달러화 대비 솔화 환율이 최근 수년 간 3.3솔/달러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음. 단,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개도국 자산에 대한 투자심리 냉각 여파 등으로 2020년 말 환율은 전년 동기(3.31솔/달러) 대비 9.3% 상승한 3.62솔/달러, 2021년 말 및 2022년 말 환율은 각각 3.99솔/달러, 3.81솔/달러를 기록하였음.
- * 페루 정부는 대외충격 방어 및 통화주권 회복 등을 위해 현지화 이용률 확대 정책을 지속해 오고 있음. 이에 따라 페루 내 달러화 표시자산은 지난 18년 간 금융기관 유동성의 약 65%에서 26.3%, 민간 여신잔액의 약 75%에서 21% 수준으로 감소함(2020.10월 기준).
- EIU는 높은 수준의 광물 수출가격이 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압력을 막아주겠지만, 국내 정치 불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지속되어 연말 기준 환율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3.81→3.90솔/달러). 한편, 대규모 외환보유액(2022년 말 672억 달러)을 활용한 중앙은행의 환율 방어능력 등을 감안 시 환리스크는 감내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5] 미 달러화 대비 솔화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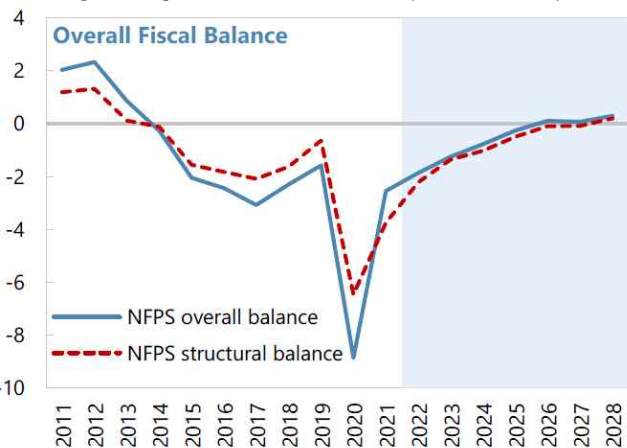


국내경제

구리 수출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 재정지출 증가 둔화로 재정수지 적자 축소

- 페루 정부는 ①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 30% 이하, ②2021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1% 달성이라는 목표를 명시한 재정특별법 하에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 결과 2019년 기준 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은 26.9%,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1.6% 수준까지 개선되었음.
- 2020년 재정수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출 감소, 경기 침체에 따른 관세·법인세 등 세수 감소 및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으로 재정수입이 감소한 반면, 경기침체 타개를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 등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9.0%에 달하였음. 페루 정부와 의회는 적극적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특별법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였음.
- 최근 의회는 2022년 5월 정부 당국이 제안한 재정준칙의 수정을 승인한 바, 이에 따르면 재정수지 목표는 2026년까지 GDP의 -1.0% 이상, 공적채무 규모는 2030년까지 GDP의 30%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한편, 2021년에는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세수 증가, 경기 부양책 규모 축소에 따른 재정지출 감소 등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2.5%로 크게 개선되었음. 2022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광물 수요 증가에 따른 관련 세수 증가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1.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IMF에 따르면 페루의 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은 2021년에 36.4%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하락할 전망(2028년 31.9%)이나, 정치 불안정에 따른 의회·정부의 새로운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건전화 노력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음(EIU).

[그림 6] 페루 재정수지 추이(GDP 대비 %)



자료 : IMF(2023)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경상수지 | -2,895 | -1,680 | 2,398 | -5,273 | -10,644 |
| 경상수지/GDP | -1.3 | -0.7 | 1.2 | -2.3 | -4.4 |
| 상품수지 | 7,201 | 6,879 | 8,196 | 14,833 | 9,565 |
| 상품수출 | 49,067 | 47,980 | 42,905 | 63,151 | 65,835 |
| 상품수입 | 41,866 | 41,101 | 34,709 | 48,317 | 56,269 |
| 외환보유액 | 57,930 | 64,919 | 71,442 | 73,492 | 67,337 |
| 총외채 | 77,552 | 80,200 | 88,768 | 103,677 | 104,669 |
| 총외채잔액/GDP | 34.2 | 34.5 | 43.1 | 45.9 | 43.2 |
| D.S.R. | 18.3 | 19.5 | 17.5 | 9.4 | 11.4 |

자료: IMF, EIU, OECD

다국적 광산기업의 과실송금으로 인한 본원소득수지의 대규모 적자 지속은 경상수지 적자의 근원

- 페루 경제는 구리, 금 등 광물자원 수출이 총수출의 약 60%에 달하는 원자재 의존형 수출구조로 원자재 국제가격에 따라 상품수지 규모가 좌우되고 있으며, 광산개발 기업 등 다국적기업의 해외 과실송금 등에 따른 본원소득수지 적자 규모가 경상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21년에는 글로벌 교역 재개, 제1·2위 수출대상국인 중국과 미국의 경기 회복, 구리 국제가격 호조 등에 힘입은 상품수출 증가분(+47.2%)이 내수 회복 및 연료 수입가격 상승 등에 따른 상품수입 증가분(+39.2%)을 상쇄하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148억 달러에 달함. 단, 연이은 봉쇄조치로 관광업 타격이 계속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73.5억 달러) 개선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경기 회복에 따른 다국적기업들의 과실송금 재개로 2021년 경상수지는 -52.7억 달러(GDP의 -2.3%)의 적자로 전환되었음.
- 2022년에도 원자재 국제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품수지 흑자 기조는 유지되었으나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흑자 폭이 축소되고,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의 본원소득수지 적자가 지속된 결과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GDP의 -4.4%).

| 구분(억 달러)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상품수지 | 72.0 | 68.8 | 82.0 | 148.3 | 95.7 |
| 서비스수지 | -33.8 | -39.8 | -46.7 | -73.5 | -82.9 |
| 본원소득수지 | -115.2 | -96.0 | -61.3 | -181.3 | -173.7 |
| 이전소득수지 | 48.0 | 50.2 | 50.0 | 53.7 | 54.5 |

자료: IMF, EIU

대외거래

- 2023년에는 세계 경기 침체로 상품수출액이 감소하겠으나, 정치적 불안의 영향으로 수입수요도 감소하면서 상품수지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주요 광산에서의 각종 시위에 따른 일시적 생산 중단 등으로 본원소득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소폭 감소한 -3.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EIU).

외채상환능력

꾸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안정적인 수준 유지

- 페루는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친시장 기조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등에 힘입어 외환보유액 규모가 최근 수년 간 600억 달러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단, 2020년에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신규 투자 급감 및 기 투자자금 회수 등으로 음(-)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기록한 바 있음.
-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UNCTAD, 억 달러) : 64.6('16) → 65.3('17) → 67.6('18) → 61.8('19) → △9('20) → 59.1('21)
- 2022년 외환보유액은 672억 달러 규모로 월평균수입액의 9.0개월분 및 단기외채잔액의 8.6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비교적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한 외채 조달능력 등을 감안할 때 단기 유동성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외채구조는 경제규모 대비 비교적 양호한 편

- 페루의 외채잔액은 쌍둥이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인해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채무관리 노력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우호적인 차입여건 등에 힘입어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19년 34.5% 수준까지 감소하였음. OECD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페루 총외채의 90% 이상이 중장기 채무로 구성되어 있는 등 외채구조는 비교적 양호한 편임.
- 2020~21년에는 경기부양책 재원 마련을 위한 긴급자금 조달 및 정부지출 증가 등으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각각 43.1%, 45.9%로 증가하였으나, 2022년(43.2%) 이후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GDP 규모 증가,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등에 힘입어 동 비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2028년까지 30%대 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IMF, 2023년 3월).
- 최근 구리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총수출 증가로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5% 미만으로 안정되었으며,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도 수출이 급감한 2020년을 제외하고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e | 2023 ^f |
|----------------|-------|-------|-------|-------|-------------------|-------------------|
| 외채원리금상환액(억 달러) | 104.9 | 111.8 | 83.3 | 63.6 | 83.1 | 85.3 |
| D.S.R.(%) | 18.3 | 19.5 | 17.5 | 9.4 | 11.4 | 11.6 |
| 총외채잔액/총수출(%) | 135.1 | 140.0 | 186.4 | 153.8 | 143.0 | 140.5 |

자료: OECD, EIU

구조적취약성

광물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 등에 취약한 경제구조

- 페루는 광업이 경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여, 국가경제가 원자재 국제가격 및 글로벌 경기 변동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 광물자원 부문은 2019년 기준 GDP의 9%, 상품수출의 59%,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구리, 금, 아연 3개 품목의 수출액이 전체 광물자원 수출의 약 82%에 달함.
- 원자재 국제가격이 하락했던 2014년 중반 이후 페루는 교역조건 악화 등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를 보였으며, 2018년 경제성장률 소폭 반등 이후 2019년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세와 동반하여 경제성장률이 재차 하락하는 등 원자재 국제가격과 경제성장률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 페루 정부는 광업 부문에 편중된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해 농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관광업 개발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경제구조 다변화 수준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경제성장의 필수 요소인 교통 및 통신 인프라가 취약한 수준

- 페루는 안데스 산맥이 중앙부를 관통하고 있으며, 산악 지역(30%) 및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14%)이 국토 면적의 40% 이상에 달해 육상교통 인프라 및 통신망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도로의 86%인 141,557km가 비포장 상태이며, 철도 인프라는 공공철도 1,668km, 광업회사 등이 운영하는 민간철도 239km 등 총연장 1,907km에 불과함.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The Global Competitive Index, 2019년)에 따르면 교통 인프라 부문의 세부 항목별 순위는 141개국 중 도로 인프라 품질 110위, 철도 인프라 연결성 95위 등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사용자(성인 기준)는 전체의 52.5%로 141개국 중 94위에 그쳤음.
- 이에 2019년 페루 정부는 인프라 개발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교통, 통신, 에너지, 상하수도 등 우선 추진사업 52건을 발표함(주페루 대사관 자료 인용).
- 동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 내에 기본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109억 달러), 하수처리(87억 달러), 보건(83억 달러) 등 335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488억 달러), 보건(178억 달러), 통신(62억 달러), 에너지(21억 달러) 등 1,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매년 GDP의 4~5% 투자 필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은 리마 지하철 3호선(70억 달러) 및 4호선(37억 달러), 중앙고속도로(31억 달러), 쿠스코 도로(1.6억 달러), 안데스 산맥 도로 정비(5억 달러) 등임.
- 한편, 페루의 인터넷 침투율은 주변 국가 대비 낮은 수준으로, 고속 인터넷 연결은 도시 지역에 국한되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한편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Fitch Solutions).
- 2021년 1월 페루 교통통신부는 농촌 인구 100만 명에 대한 4G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공급을 위해 약 15.8억 솔(약 4.1억 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아울러 모바일 원격통신 서비스 개선에 1.3억 솔(약 3,600만 달러)을 투입하여 240개 지역의 인터넷 접속을 가능케 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성장잠재력

다양한 광물자원 보유 및 광산업 개발 잠재력 풍부

- 페루는 구리, 금, 아연, 납, 은 등 다양하고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 투자 유치 노력을 감안 시 향후 성장잠재력도 풍부한 것으로 평가됨.
- USGS(미 지질조사국) 발표에 따르면, 페루의 구리 매장량 및 생산량은 2021년 기준 각각 7,700만 톤, 220만 톤으로 세계 3위 및 세계 2위를 점하고 있으며, 금 매장량(2,000 톤) 및 생산량(90 톤)은 세계 9위 및 세계 11위에 달함. 아울러 은, 납, 아연, 철광석도 매장량 및 생산량에서 세계 상위권에 들고 있음.
- 한편, British Petroleum 보고서에 따르면 페루는 중남미 7위(아르헨티나, 트리니다드토바고, 브라질,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順)의 천연가스 생산국(2021년 115억 m³)이며, 확인매장량(2020년 0.3조 m³) 기준으로는 중남미 5위를 점하고 있음.
- 페루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광물자원 중 특히 구리의 생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페루 정부도 2014년 복잡한 환경허가 절차 간소화, 중복되는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친환경법을 제정하여 광산 개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조치로 일시 중단되었던 광산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구리는 전기장비 및 통신 인프라, 가전제품, 자동차, 건설장비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며, 해상풍력·육상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및 전기차(배터리) 제조에 핵심원료로 투입됨에 따라 향후에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구리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페루 정부 자료 인용)에 따르면, 현재 페루에서는 43건(532억 달러 상당)의 광산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표 2】 페루의 광업 부문 주요 투자개발 사업(미 상무부 국제무역청, 2022.8월 기준)

| 투자국 | 프로젝트 수 | 비용(억 달러) | 투자국 | 프로젝트 수 | 비용(억 달러) |
|-----|-----------|----------|------|--------|----------|
| 영국 | 케야베코 등 7건 | 116 | 호주 | 1건 | 29 |
| 중국 | 7건 | 108 | 페루 | 5건 | 20 |
| 캐나다 | 10건 | 83 | 브라질 | 5건 | 20 |
| 미국 | 2건 | 71 | 한국 등 | 3건 | 20 |
| 멕시코 | 3건 | 65 | 합 계 | | 532 |

- 한편, 2020년 10월 페루 정부는 2020년 말까지 리튬 및 우라늄 개발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페루 남동부에서 캐나다 광산투자 개발 기업(Plateau Energy Metals)과 함께 리튬 및 우라늄 탐사·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힘.
- 페루 남동부 푸노 지역에 매장된 리튬은 250만 톤, 우라늄은 1억 2,400만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페루 내 방사성 물질 채굴 관련 법안이 부재하여 개발이 지연되어 왔음.
- 최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인 칠레, 볼리비아 및 아르헨티나가 이른바 ‘리튬 삼각지대’를 형성하며 리튬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페루의 리튬 생산이 본격화될 경우 향후 광산업 발전 경로도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 USGS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리튬 확인매장량의 절반 이상이 리튬 삼각지대에 분포

정책성과

꾸준한 시장친화적 정책 추진으로 기업경영여건 개선

- 페루는 견조한 경제성장, 시장친화적 정책 등에 힘입어 매년 GDP의 약 3%에 달하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되고 있으며, 기업경영여건 또한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경영여건(Ease of Doing Business) 보고서 종합순위에서 페루는 2020년 조사대상 190개국 중 76위로 역내 주요국 중 칠레(59위), 멕시코(60위), 콜롬비아(67위)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순위에 올랐음. 특히 건설 인·허가(65위, 중남미 1위), 재산권 등록(55위, 중남미 2위), 소액투자자 보호(45위, 중남미 2위), 자금조달(37위, 중남미 10위) 등 제반 행정 및 신용 획득 부문은 국제사회 및 역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페루 정부는 1993년 외국인투자촉진법 발효 이후 관세장벽 철폐, 시장 개방 및 거시경제 안정화 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02년에는 민간투자 촉진·관리 전담기관인 투자청(PROinversion)을 설립하고 광업 부문을 중심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PPP(민관협력) 방식의 사업 개발을 추진하여 왔음.
- 1993년 개정된 페루 헌법에 따라 내·외국인 투자자 동등대우 원칙이 적용되어 외국인은 투자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 등과 관련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군수물자 제조, 희소자원 개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함. 한편, 페루 정부는 외환 관련 규제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수익, 배당, 로열티 송금에 제약을 두지 않는 등 외환 안정성 및 투자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음.

정치동향

카스티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사회·정치 갈등 심화

- 2022년 12월 7일 페루 국회는 총 130명의 재적의원 중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을 크게 상회하는 101명의 의원의 찬성으로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였음. 헌법에 따라 탄핵안 가결 당일부터 디나 볼루아르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였으며, 특별한 정치적 사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2026년까지 카스티요 前대통령을 대신하게 됨.
- 카스티요 前대통령은 지난 2021년 7월 취임 후 불과 3개월 만인 동년 10월 처음으로 탄핵 위기에 직면하였으며(탄핵안 통과 실패) 2022년 3월에도 두 번째 탄핵 위기를 겪었음(탄핵안 통과 및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 2021년 6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불과 0.5%p 득표율 차이로 당선된 카스티요 前대통령은 야당의 대선 결과 불복 소송으로 취임이 미뤄지는 등 취임 과정도 순탄치 않았으며, 수십 년 간 페루 정계를 장악했던 야당은 카스티요 前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를 지속하여 결국 취임 1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됨.
- 한편, 대선 1차 투표와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는 총 20개 정당 중 10개 정당이 원내 진입에 성공하였으며, 전체 130석 중 카스티요 前대통령 소속 정당인 자유페루당이 37석, 야당 대통령 후보인 게이코 후지모리(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맏딸) 소속 정당인 민중권력당이 24석을 각각 차지하는 등 특정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원내 진입 정당들이 극도로 양극화·파편화됨에 따라 당초 자유페루당이 추진하고자 했던 광업 등 전략산업의 국유화와 헌법 개정 등 급진적인 정치개혁은 수포로 돌아감.

[표 3] 2021년 6월 페루 총선 결과

| 정당 성향 | 정당별 의석 | 정당 성향별 의석 |
|-------|--|-----------|
| 좌파 | 자유페루당 37석, 민중행동당 16석, 페루와함께당 5석 | 58석 |
| 우파 | 민중권력당 24석, 민중혁신당 13석, 국가전진당 7석, 페루가능당 5석 | 49석 |
| 중도 | 진보를위한연대당 15석, 우리페루당 5석, 자색당 3석 | 23석 |
| | 총 합계 | 130석 |

- 한편, 카스티요 前대통령 탄핵을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대가 볼루아르테 대통령 퇴진, 국회 해산,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새로 선출하기 위한 조기 총선 실시 등을 요구하며 도로 점거 등 시위에 나서자 볼루아르테 행정부는 총 7개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2023년 2월까지 5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갈등이 격화되었음.
- 시위 격화에 따른 사회불안 고조로 유명 관광지인 마추픽추의 출입이 한 때 금지되고 페루 최대 구리 광산 중 하나인 밤바스 광산의 조업이 중단되는 한편, 도로 점거에 따른 물류 차질로 물가가 상승하는 등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Moody's 등 3대 신용평가사들은 페루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새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을 2023년 시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파 성향의 의원들은 2026년까지 보장된 임기를 마치고자 조기 총선에 반대하고 있으며, 좌파 성향의 의원들은 조기 총선 법안에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포함되어야 한다면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법안을 거부하고 있음.
- EIU(2023.4월)는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더라도 정치적 반대 시위가 재임 기간 내내 계속되고, 시위에 따른 광산 운영과 국내 공급망 차질이 경제에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사회동향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 만연

- 정부의 친시장 정책과 다양한 광물자원, 젊고 풍부한 노동력, 유리한 입지조건 등 높은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부정부패 이슈는 투자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음.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2년 부패인식지수 보고서에서 페루는 조사대상 180개국 중 101위에 그쳤음. 이는 칠레(27위), 콜롬비아(91위), 아르헨티나(94위) 등 주변국 대비 낮은 수준임.
- 브라질 최대의 건설기업 Odebrecht사가 공사 수주를 위해 각국 정치인들에게 총액 8억 달러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2014년의 Odebrecht 스캔들과 관련, 2016년 미 법무부는 2005~14년 중 Odebrecht사가 페루 공직자들에게도 총액 29백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발표함. 특히 알레한드로 툴레도(2001~06년 재임), 알란 가르시아(2006~11년 재임, 체포 직전 자살), 오얀타 우말라(2011~16년 재임), 페드로 쿠친스키(2016~18년 재임) 등 4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음..
- 2021년 대선에서 결선투표에 오른 게이코 후지모리 후보 역시 2011년 대선 당시 Odebrecht사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로 2018년 11월 구속된 바 있음.
- 페루 정부는 반부패 계획(2018~21년)을 통해 부패 척결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마르틴 비스카라 전대통령은 정부의 투명성 제고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2018년 국민투표를 통해 국회의원 연임 금지, 정치자금법 개혁, 사법위원회 개혁 등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광산, 에너지 개발 반대 등 시위 발생

- 페루는 광산 및 에너지 개발사업으로 파생되는 토지 보상, 거주민 이전 문제, 환경파괴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시위, 근로자 파업 등이 빈발하면서 사회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16~17년 페루의 최대 구리 생산회사 중 하나인 Las Bambas의 광산 개발에 반대하는 시위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2020년 7월에도 동사에 경제적 혜택을 요구하는 시위대의 공격이 이어졌음.
- 한편, 2022년 3월에는 페루에서 두 번째로 큰 구리 광산인 Cuajone 광산의 조업이 2주 넘게 중단되었는데, 지역 주민들은 광산이 지역경제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채굴에 이용되는 수로와 철도를 봉쇄한 바 있음.

코카인 등 불법 마약거래로 인한 치안 불안 가능성 상존

- 페루는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 주변국에 비해 갱단을 중심으로 한 조직범죄 위협은 크지 않은 편임. 단, 페루(재배면적 6.2만 헥타르)는 콜롬비아(14.3만 헥타르), 볼리비아(2.9만 헥타르)와 함께 중남미 3대 코카인 생산지로, 아푸리막 강, 에네 강, 만타로 강 계곡 지역("VRAEM")을 중심으로 코카인의 원료인 코카(coca)의 불법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다시 반정부 사회주의 테러 조직 '빛나는 길'(Shining Path)과 연계되어 치안 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페루 정부는 코카 경작면적 축소, 대체 작물(코코아, 커피, 팜유 등) 경작 지원 등 코카 재배 근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2019년)에서 전체 141개 평가대상국 중 테러 발생 순위 92위, 인구 10만 명 당 살인율 108위에 해당하는 등 범죄 피해 관련 세부순위는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국제관계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외개방 경제정책 추진

- 페루는 중남미에서 경제가 가장 개방적인 국가 중 하나로, 페루 정부는 글로벌 시장으로의 조속한 편입을 위해 전 세계 50개국 이상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개방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 한국, 미국, 중국, EU, 일본, EFTA, 캐나다, 태국, 멕시코, 칠레,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등
- 페루는 미국(2009년), 중국(2009년), 한국(2011년)*, EU(2012년)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 FTA를 체결하여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도, 터키, 엘살바도르 등과도 FTA 협상을 진행하는 등 FTA 체결을 적극 추진 중임. 아울러 덴마크,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등 32개국과 양자간 투자보장협정도 체결하였음.
- * 페루는 칠레에 이어 우리나라의 중남미 지역 두 번째 FTA 체결국으로, 2022년 기준 우리나라는 페루의 제3위 수출대상국이자 제12위의 수입대상국임.

[표 4] 페루의 상품 수출입 및 거래국가 현황

| 5대 수출상대국 | | 5대 수출물품 | | 5대 수입상대국 | | 5대 수입물품 | |
|----------|--------|---------------|--------|----------|--------|-----------------|--------|
| 국가명 | 비 중(%) | 품 목(HS코드) | 비 중(%) | 국가명 | 비 중(%) | 품 목(HS코드) | 비 중(%) |
| 중국 | 32.0 | 광, 슬랙, 회(26) | 38.2 | 중국 | 28.6 | 보일러 기계 및 부품(84) | 13.2 |
| 미국 | 12.8 | 진주·귀석·귀금속(71) | 14.4 | 미국 | 18.7 | 광물연료(27) | 12.6 |
| 한국 | 5.0 | 과일, 견과류(08) | 8.3 | 브라질 | 6.7 | 전자기계(85) | 9.0 |
| 일본 | 4.9 | 광물성 연료(27) | 7.0 | 아르헨티나 | 4.5 | 철도 및 차량(87) | 8.6 |
| 캐나다 | 4.9 | 동과 그 제품(74) | 5.4 | 멕시코 | 3.7 | 플라스틱(39) | 5.9 |

자료 : Trade Map

- 페루는 중남미 지역에서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안데스공동체(CAN) 등의 회원국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통합을 강화하고 역내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태평양동맹(2012년)은 칠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4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로 중남미 총 GDP의 약 40%를 차지하며, 재화, 서비스, 복지, 자본 및 인력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 도모, 회원국 간 균형적인 경제성장 도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점을 둔 정치 협력을 위한 플랫폼 역할 등을 목표로 삼고 있음. 현재 싱가포르가 2022년 1월 준회원국(태평양동맹과 양자 FTA 체결을 의미)으로 가입하였고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우리나라는 준회원국 가입 교섭을 진행 중이며, 에콰도르는 정회원국 가입을 준비 중임.
 - 안데스공동체(1996년)는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4개국이 참여하며 회원국 간 일반관세를 철폐하고 2004년부터 대외 공동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 한편, 페루는 1998년부터 APEC 포럼에 정회원국으로 참여하여 왔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참여하는 등 중남미 지역을 넘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서의 입지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등 11개국

외채상환태도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ECA 앞 연체비율은 미미

- 페루는 1980년대 중남미 외채 위기 당시를 포함하여 1996년까지 파리클럽과 총 8번의 채무재조정(총 149.3억 달러)을 실시하였음. 단, 2005년(20억 달러) 및 2007년(25억 달러)에 파리클럽 채무를 조기상환하면서 글로벌 채권자들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였으며, 2021년 4월 현재 채무재조정 잔액은 전액 상환한 상태임.
- 2022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 지원잔액 45.3억 달러(단기 17.6억 달러, 중장기 27.7억 달러)* 중 연체잔액은 3.8백만 달러(연체비율 0.08%)에 불과함.
- * 캐나다(15.3억 달러), 스페인(14.6억 달러), 이탈리아(10.8억 달러) 등 21개 ECA 지원 중
- 한편, 미 수은, 독일 Hermes, 영국 UKEF 등 주요 ECA들은 단기 및 중장기 자금 모두 원칙적으로 인수 가능하며, 영국 UKEF의 경우에는 중장기 자금을 대해 현지화 인수도 취급 가능하다는 입장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 평가기관 | 최근 평가 등급 | 종전 평가 등급 |
|---------|----------------|----------------|
| OECD | 3등급 (2022.10) | 3등급 (2021.10) |
| Moody's | Baa1 (2021.09) | A3 (2014.07) |
| Fitch | BBB (2021.10) | BBB+ (2020.12) |

OECD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3등급 유지

- OECD는 2008년 페루의 높은 경제성장세, 교역상대국 다변화, FDI 유입 증대,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등을 고려하여 종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국제신용평가3사도 2008~09년부터 투자적격등급 부여, 최근 등급 하향 조정

- 국제신용평가3사는 2008~09년부터 페루에 투자적격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다만, 2021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페루에 대한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하향 조정하였음.
- Moody's는 2021년 9월 페루의 신용등급을 A3에서 Baa1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면서, 지속되는 정치적 양극화와 파편화된 정치환경이 정치위험을 증가시키고 정부의 정책 역량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하였음. 한편, 2023년 1월에는 지속되는 사회 불안 및 정치 혼란이 외국인투자를 방해하고 중기 성장전망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변경하였음.

국제시장평가

- 2020년 12월 Fitch는 페루의 신용등급(BBB+) 전망을 종전의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2021년 10월에는 신용등급을 BBB로 한 단계 낮추었음.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점, 카스티요 대통령 당선에 따른 정정 불안과 이에 따라 경제정책 예측 가능성이 저하된 점 등을 반영한 것임. 또한, 2022년 10월에는 고조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개혁정책의 시행을 방해하고 경제성장 전망을 저해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로 하향 조정하였음.

- 페루는 중남미 국가 평균 대비 안정적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정부의 친시장정책 기조, 재정특별법 등에 따른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중앙은행 등 경제부처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거시경제 운용 등에 힘입어 글로벌 투자신인도를 제고하고 외국인투자여건을 개선하여 왔음.
- 2022년에는 원자재 국제가격의 상승세에 힘입은 수출 증가 등으로 2.7%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되나, 2023년에는 정정 불안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과 정치·사회 혼란에 따른 투자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광업 부문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로 인해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 및 다국적 기업의 과실송금 규모 등에 의해 경상수지가 좌우되고 있음. 단, 정부의 채무부담이 낮은 편이며, 안정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및 해외차입시장에 대한 높은 접근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인 외화 유동성 위험은 제한적임.
- 다양한 광물자원 및 관광자원, 풍부한 노동력 및 유리한 입지조건, 정부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경제정책 등은 페루의 장기 성장잠재력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함. 단, 부정부패 만연, 치안 불안, 시위 등 소요 사태로 인한 사회불안 요소가 잠재하는 가운데, 2022년 12월의 대통령 탄핵 등에 따른 정정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